

(平醫)⁵⁾

가

가

1.

1945 11 19 5 (道) 가 (保健局)
(尹基寧)⁶⁾ 5 10 1946 2
8 (北朝鮮 臨時人民委
員會) 1946 11
1947 2 (北朝鮮 人民委員會)
(李東英)⁷⁾
2 가

한반도 전 지역에 걸쳐 수집, 노획한 2,500여 장자에 달하는 자료의 일부분이다(국사편찬위원회 : 북한사 자료 목록, 대한민국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김옥주 : 북한 의학잡지 연구, 1950년대 인민보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1 : 165-185, 2002.). 이 자료들은 미 군함을 통해 운반될 때 2,005번부터 20,046번까지 고유번호 (Shipping Advice, SA)가 붙여졌으며, 상당 부분이 1977년 기밀 문서 분류에서 풀려나 공개된 후 일부가 국사편찬위원회의 북한사 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정치, 군사,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평양의학대학 이력서이다(국사편찬위원회 북한사 자료 목록, 95쪽). 평양의학대학 이력서는 두 부분(관리번호 2154, 3167)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작성 년월이 1948년-1949년에 걸쳐 있으나, 두 자료에 동일 건이 중복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번에 노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력서는 간부리력서와 보통 리력서가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관심이 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출생지(본적)와 현주소 : 출생지가 북한일 경우 자연스럽게 북한에 체류할 수 있으나, 남한이나 다른 곳일 경우 어떤 이유에서 북한에 남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 (2) 계급적 기반 : 부모의 직업, 토지 개혁 관계, 재산 정도 등
 - (3) 의학 전공 이전의 학력
 - (4) 의학을 전공한 이유와 출신학교
 - (5) 박사학위 소지 여부 및 유학 경험 : 초창기 북한 의학 교육자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 (6) 해방 이전 사회운동 경험 : 북한의 의학 교육자들이 일제 시기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는지
 - (7) 북한정권 참여 동기 및 정당 활동 여부
 - (8) 졸업 후 의사로서 활동 상황 (경력 및 월급 여부)
- 이외에 자신의 일생을 기술하는 자서전이 있어 한 개인의 생각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수 있고, 따로 행정 책임자의 평가가 담긴 평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 5) 평양의학대학 이력서만큼 중요하게 이용된 자료는 남한에 현재 생존 중인 평양의학대학 졸업생들의 기록인 평양동창회지인 평의이다. 1967년 처음 발간된 이후 거의 매년 발간되어 2002년까지 31집이 간행되었다. 내용 중에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회고한 부분에서 평양의학대학 이력서나 기타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귀중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 6) 윤기영은 서울 출신이며, 1922년 정성약전을 졸업하고, 1928년 경희전을 졸업했다. 해방 직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 국장을 역임하다 1947년 2월부터 북조선 약연구소 의사로 근무하였다.
- 7)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85쪽, 1949.

1948 9 (保健相) (李炳南)⁸⁾, (副相) (李東華)⁹⁾가
14 가
(平壤醫學專門學校,) 1923 1 (慈惠醫院)
1923 4 2
(平壤醫學講習所), (醫官) (醫員)
가 , 1929
1933 3 8 가
10) 1933 1 1945 8 14
11)
1944 (咸興醫學專門學校)
1946 9 1
(咸興醫科大學) 가 (崔明鶴)¹²⁾
1948 2 6
9 1 (清津醫科大學) 13)
(梁珍弘)¹⁴⁾ 1948 90 15) 1949

- 8)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3쪽, 1949. 이병남은 1914년 전남에서 출생하여 1931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했다. 북한인명사전(동서문제연구소 編 1990)에 따르면 이병남은 1939년에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의대 동창회 명부에는 1931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병남은 1914년보다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9월 제1차 내각의 보건상에 임명되었다. 동서문제연구소 編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서울, 1990
- 9) 이동화는 소련 2세로 이르쿠츠크외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원이기에 소련대사관에서 사전에 보건정책을 지령받고 있었기에 이병남이 그의 의견을 무시할 없는 처지였다. 이동화는 한국전쟁 때 전선사령부 군의부장이었다. 정창수 : 모고 8.15에서 6.2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이와 달리 북한인명사전(동서문제연구소 編 1990)에 따르면 이동화는 중국 의학교를 수료하고 팔로군 군의관으로 복무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동서문제연구소 編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서울, 1990
- 10) 기창덕 :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261-269쪽, 1995.
- 11) 평의전과 평의대의 졸업 횟수와 연도는 다음과 같다. 1회 - 1933년 3월, 2회 - 1934년 3월, 3회 - 1935년 3월, 4회 - 1936년 3월, 5회 - 1937년 3월, 6회 - 1938년 3월, 7회 - 1939년 3월, 8회 - 1940년 3월, 9회 - 1942년 3월, 10회 - 1941년 12월, 11회 - 1942년 9월, 12회 - 1943년 9월, 13회 - 1944년 9월, 14회 - 1945년 8월, 15회 - 1947년 3월, 평의대 1회 - 1949년 7월, 2회 - 1950년 3월
- 12) 최명학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며, 1926년 세외전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해부학을 전공하였으며, 1932년 경도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발생학 분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36년 학교를 사임하고 낙향하여 최명학 외과의원을 개업 중 해방을 맞았다. 1946년 9월 함흥의학대학장으로 임명되었고, 1948년 의학박사를 수여받았다. 박형우, 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외사학 1992 ; 1(1) : 88-91
- 13) 김형찬 :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서울, 140쪽, 1988.
- 14)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29쪽, 1949. 양권홍은 함경남도 단천군 출신이며, 1918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3년 동안 함북 성진에서 제동병원을 운영하다가 1920년 출국하여 동경제국대학 산부인과 연구생으로

145 .16)
 1945 11 가
 5 .17)
 1947 8 29 7
 (醫師)
 5
 (學職,) (學位) 가 8
 1948 10 26 가 (國家學位授與委員會)
 가
 (博士) (學士) .18)
 가 가 , 가
 가 .19)
 (金料奉) , (洪命憲) 8 ,
 (張起呂)²⁰⁾가
 , 가
 5 , 7 , 5
 , 3
 (, ,)
 가
 가 1949 10
 「赤血球 代謝 病理 關 研究」 , 「鉛中毒性 關 實驗的 研究」

3년 동안 있었다. 1922년 귀국 후 다시 제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2년 동안 동경제대 전염병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있었다. 1924년 귀국 후 함남 이원군 이원면에서 함춘의원을 경영하였고, 1928년부터는 함남 북청군 신북청면에서 신북청 천도병원을 운영하였다. 1931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으로 유학하여 외과교실에서 연구하면서 1933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중국 목단강시 창덕가에서 국제병원을, 1939년부터 1947년까지 함북 청진시 중앙리에서 아세아병원을 경영하다가 1947년 청진의학전문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948년 청진의학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교장이 되었다. 이외에 해방 후 북조선 적십자사 함북도 지부장, 북조선 보건연맹 함북도 위원장, 천진 중앙병원 산부인과장을 역임하였다.

15) 홍순원 : 조선보건의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462쪽, 1981.

16)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29쪽, 1949.

17) 홍순원 :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464쪽, 1981.

18) 조선중앙년감 1950.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350쪽, 1950.

19) 조선중앙년감 1954-1955.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49쪽, 1954.

20) 장기려는 평남 용천군 출신이며, 1932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외과 조수 및 강사를 하다가 이용철의 소개로 1940년 3월 평양연합기독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하였다. 그해 11월 병원장 앤더슨이 귀국하자 병원장의 책임을 맡았다가 1941년 1월 원장직을 사임하고 외과과장으로 있다가 5월 황달에 걸려 휴양 중 해방을 받았다. 해방이 되자 김명선의 추천으로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평의진 병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946년 11월 월북한 최용석에게 병원장 자리를 넘겨주었다. 역운학 역음 : 생명과 사람. 인간 장기려. 규장문화사, 서울, 1980.

2. (1945. 8. 15-1946. 8. 31)

1945 8 15 .²¹⁾
 2-3 (崔昌錫, 8)²²⁾ 4 (崔重錫, 9),²³⁾
 (朴根模, 9)²⁴⁾가 (赤衛隊) (高田
 昇) ,²⁵⁾ (西原) .
 (瑞氣山) 가
 , 3 .²⁶⁾
 (申榮瑞, 11)가 가
 (朴弘烈, 2 , 1939)²⁷⁾ (安敬林, 5
 , 1941 10)²⁸⁾ ,
 가 (呂永春)

1945 10 (鄭斗鉉)²⁹⁾

- 21) 현무섭 : 평의 학창시절에서 일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 배만규 : 미추린 학설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22) 최창석은 1948년 보건성 외무국장직으로 있었다.
- 23) 최중석은 1948년 평안남도 보건부장으로 있었다.
- 24) 박근모는 최용석이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평양특별시 보건과장으로 취임했고 한국전쟁 때 서울에 와 있었다고 한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25) 다짜다 교장은 발진티푸스에 걸려 1946년 1월 11일 평양 시내에서 사망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26) 정창수 : 우리는 일남오녀. 평의 제5집, 50-54쪽, 1974.
- 27) 박흥렬은 평남 약덕군 출신이며 보통학교 시절 월반을 했고 5학년에서 고교에 합격했다. 1934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소아과에 입국하였고, 1935년 함남 도립 원산병원에 근무하다가 1938년 평양도립의원 소아과에 다시 돌아왔다. 1939년 평의전 소아과 조교수로 발령을 받고 1944년 교수(적무대리)가 되었다. 박흥렬 선생 약력. 평의 제16집, 58쪽, 1985. ; 김린성 : 평의 학창 시절의 회고. 평의 제9집, 270-279쪽, 1978.
- 28) 안정림은 본적지가 평양이지만 제주도에서 출생하였고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2년간 평택의 평택병원에 취직했다가, 1939년 3월부터 도립평양의원 외과에서 근무하였고, 1941년 10월 평의전 조교수로 임명받았다. 해방이 되자 평의전 병원 외과를 임시로 책임 맡았다가, 1945년 10월 병원장으로 부임한 장기려에게 책임을 넘겼다. 1946년 4월 교수로 발령받았다.
- 29) 정두현은 1888년 10월 27일 평양 근교에서 출생하였으며, 1914년 동경제대 농학부를 졸업한 후 평양 숭덕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중 1919년 4월부터 7월까지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출소 후 숭덕학교에 복직하여 교장을 역임하였고, 동북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생물학과를 1930년 졸업하였으며, 귀국하여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대북제대 의학부를 1941년 12월 졸업하였다. 그는 1942년 4월부터 1945년 6월까지 경성제대에서 내과학 및 생리학을 연구하였으며, 평양에서 휴양 중 해방을 맞았다. 그는 1945년 10월부터 평의전의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1947년 2월 쾨셀의 배출을 위한 평양의학전문학교의 교장도 겸무하였다. 쾨셀(Feld-Scherer)은 독일어로 Feld는 들, Scherer는 이발사, 즉 들에서 활동하는 이발사란 뜻인데,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서는 하급군의를 지칭했다.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북한에서는 농촌에 있는 한지의사를 통털어서 쾨셀이라 불렀다.

() , 가 가 .

1946 2 가 (5 , 金日善),³⁰⁾ ,

.³¹⁾ 1946 5-6

.³²⁾

가 .

: (1945 10)

: (1945 8 15)

(1945 10)

: (, 1946 1)³³⁾

(13 , 1945 12 ,)³⁴⁾

: (金相玟, , 1947)³⁵⁾

(禹泰河, 14 , 1945 9 , 1946 8)³⁶⁾

- 30) 김일선은 한국전쟁 전에 황해도 보건부장을 지냈다고 한다. 동창회 순례. 44. 평양의전 편 6(1937년). 의협신보 제829호, 1975년 3월 27일자 14면.
- 31) 현무설 : 평의 학창시절에서 월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안경림은 1947년 1월 6일부터 1947년 6월 30일까지 북조선 노동당 평남 평양시당 야간 당학교를 수료하였다.
- 32) 배만규 : 미추린 학설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 33) 리창근은 평북 운산군 출신으로 1937년 일본 구주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부수로서 근무하다, 1938년 11월 만주 도문시 만철병원에서 취직하였고, 1941년 10월 그곳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했다. 해방 전후에 고향에서 쉬었고, 1946년 1월 평의전 강사로 임명받았다.
- 34) 리동성은 평안남도 중화군 출신이며, 1944년 평의전을 졸업한 후 일본 동경의 군의학교 학도대로 징용되어 1944년 10월 일본 삼중현 보병 115부대 후보생, 이어 11월 군의학교 후보생을 마치고 1945년 1월 일본 히로시마시의 히로시마사단, 이어 일본 고지현의 군의 배치되었다가 해방을 맞았다. 귀국하여 평양교동병원 내과 의사로 있다가 해부학 조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산업의학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산업연행에 가입하고 1946년 3월 평안남도 보건부의 소개장을 가지고 이 분야를 연구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1949년과 1950년에 리동성이 번역한 해부학 책이 출판되었기에 실제 위생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가 번역한 책은 다음과 같다. 리동성 (역) (돈코브 웨) : 인체해부학 (의대용 2). 교육성, 1949 / 국판, 270면, 3,000부 ; 리동성 (역) (돈코브 웨) : 인체해부학 (의대용 1). 교육성, 1950 / 국판, 374면, 3,000부
- 35) 김상민은 경남 하동군 출신이며 1931년 세의전을 졸업하고 평북 강계읍 계례지 병원에서 1년 동안 근무하였고 1933년 8월 경남 함안군 안의면 공의로 임명되었고, 1939년 6월부터 오짜야마 의대 생화학교실에서 담증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943년 5월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수로 임명되었고, 11월부터 평양 연합기독병원 소아과장으로 근무하다 해방을 맞았으며, 1945년 10월 평의전 생화학 강사를 겸임하였다. 그는 1945년 9월 우태하가 임국할 당시 주임이었으나 학교 출근과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았다고 한다. 김상민은 1946년 5월 사직하고 평양기독병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1월 사임하고 1947년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1947년 6월 4일부터 세브란스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과장으로 활동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함께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단기 4282년 교수 인가허가 신청서. 부 제보고에 관한 건, 세브란스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6. ; 우태하 : 우태하의 이력서. 평의 제31집, 88-93쪽, 2002.

: (1945 10)
 (14 , 1945 9)³⁷⁾
 (金) ()³⁸⁾
 : (盧善柱, 2 , ,)³⁹⁾
 (金世哲, , 1946 5)⁴⁰⁾
 (吳正國, , ,)⁴¹⁾
 (申榮瑞, 11 , 1942 9 ,)⁴²⁾
 : (鄭塾榮, 1 , ,)⁴³⁾
 (安鎮榮, , 1946 5)⁴⁴⁾
 (14 , 1945 11)⁴⁵⁾
 : (李相堯, 1 , 1945 10 , 1946 4)⁴⁶⁾
 (金能基, , 1946 2 ,)⁴⁷⁾
 : (裴永基, 2 , 1945 9)⁴⁸⁾

- 36) 우태하는 1946년 9월부터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야한다는 정두원 학장의 말을 듣고 바로 월남하였고, 1947년 3월부터 대구의대 생화학교실에서 3년간 근무하였다. 우태하 : 우태하의 이력서. 평의 제31집, 88-93쪽, 2002.
- 37) 현병근은 평안남도 안주군 출신이며, 1945년 평의전을 졸업하였다.
- 38)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39) 노선주는 1년도 못되어 퇴직하고 월남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40) 김세철은 1939년 대구의전을 졸업하였으며, 경성제대 의학부 병리학교실 제2강좌에서 근무하였고 1946년 5월 경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885-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192-205쪽, 1978
- 41) 오정국은 강서 출신으로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병리학을 전공했는데 해방 직후 약 반 년간 평의전의 병리학 교수로 있다가 월남하였다. 배만규 : 동관과 38파라지. 평의 제14집, 87-108쪽, 1983.
- 42) 신영서는 해방 당시 기초학에서 가장 고참직이었다는 기록에 근거해 졸업 직후부터 병리학에 남아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언제 월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47년 3월 대구의대 생화학교실로 들어 간 우태하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 현무섭 : 평의 학창시절에서 월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 우태하 : 우태하의 이력서. 평의 제31집, 88-93쪽, 2002.
- 43) 정숙영은 1년도 못되어 퇴직하였으며, 월남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44) 안진영은 1937년 대구의전을 졸업하였다. 해방 전 봉천에 있었고 홍순옥과 영변에 연구소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 45) 강원숙은 평안북도 창성군 출신이며, 1945년 5월 정용되어 민주 신정시 일본 관동군 898부대 군의후보생, 1945년 7월 만주 열하성 일본 육군병원 군의후보생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 46) 이상요는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출신으로 1933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약리학교실에서 부수로 근무하다 1936년 1월 피부비뇨기과로 전과했다. 1939년 8월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40년 1월 충청남도 도립대전병원 피부비뇨기과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45년 10월 평의전 교수로 임명되었다가 월남하여 1946년 4월 대구의대 교수, 1947년 1월 서브란스의과대학 피부비뇨기과 교수로 임명되었다가 12월 1일부로 사임하였다. 그런데 배만규에 의하면 이상요는 모교에서 잠시 피부과를 담당했으며, 원장을 선출할 때 모교의 최고 선배로서 물망에 오른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단기 4282년 교수 인가허가 신청서. 부 제보고에 관한 건, 서브란스의과대학. ; 배만규 : 동관과 38파라지. 평의 제14집, 87-108쪽, 1983.
- 47) 김능기는 강서군 출신으로 1930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약리학교실 및 내과학교실에서 부수로 근무하다 1937년 3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평양시 문영리 및 평원군 영원면에 김능기내과의원을 개원했다. 1945년 11월부터 병원을 쉬다가, 1946년 2월에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 48) 배영기는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으로 1934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4년간 모교 세균위생학 조수로 근무하였다.

: (盧德三, 1 , ,)⁴⁹⁾
 (金仁錫, 5 , 1944 10)⁵⁰⁾
 (鮮宇龜瑞, 7 , 1945 12 ,)⁵¹⁾
 (李晏教, ,)⁵²⁾
 (玄武燮, 10 , 1941 12 ,)
 (洪炳頭, 12 , 1944 4)⁵³⁾
 (金鶴旬, 13 , 1944 9)⁵⁴⁾
 (韓錫魯, 13 , 1944 9 ,)⁵⁵⁾
 (韓鼎鎬, 13 , 1944 9 , 1946 7)⁵⁶⁾
 : (, 1945 10 ,)⁵⁷⁾
 (1946 4)
 (金明駿, 11 , 1945 10)⁵⁸⁾

1938년 4월부터 경성제국대학 위생학 연구생으로 있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1941년 4월 평양으로 내려와 치료하면서 평의전 안과의 부수로 근무하였다. 1942년 4월부터 2년 동안 일본 구주대학 위생학에서 연구생으로 근무한 후 1944년 3월부터 평양에서 안과를 개업하였다. 1945년 9월 평의전 교수로 영입됨과 동시에 1946년 8월까지 평양의 평안남도 위생시험소 기사를 겸임하였다. 김대 의학부 시기부터는 위생학에 전념했으나 평의전 시기에는 세균학에도 관계한 것으로 보인다. 배영기는 다음과 같은 책을 저술하였다. 배영기 : 소독법. 평남도 인민위원회 예방과, 1946

- 49) 노덕삼은 1933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연구하였으며, 해방 직후부터 내과 책임자로 5-6개월 근무하다가 사임하였다. 노덕삼의 후임으로 명고옥의대 출신 한 모가 들어 왔으나 3개월을 못 다 채우고 사임하였다. 그 후 1946년 8월 원산시 인민병원장이던 전영훈이 부교수로 취임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50) 김인석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이며,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한 후 도립평양의원 부수를 거쳐 일본 동경에서 의원으로 있다가 중국 서주시에서 잠시 개원하였다. 1942년 6월부터 1944년 9월까지 나가사키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부수 및 조수를 역임하였다. 1944년 10월 평양의학전문학교 강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김인석은 내과의국으로 들어 왔으며, 나중에 생리학을 강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무설 : 평의 학창시절에서 월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 51) 선우구서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하여 1939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3년간 내과에서 근무하다 1942년 3월 일본 나가사키의대 병리학교실 조수로 근무하였다. 1944년 12월 귀국하여 평양도립병원 내과에 근무하다 1945년 7월 평안남도 개천군 개천일월병원 내과과장을 하다가 평의전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 52) 배만규에 의하면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한 이안교가 해방 후 내과 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시기는 알 수 없다. 이안교는 1938년 일본 천엽의과대학의 연구생으로 있었고, 1941년 동경 시립병원 내과에서 근무하였다. 배만규 : 동란과 38파라지. 평의 제14집, 87-108쪽, 1983. ; 한국박사대사전 제1권, 한국박사대사전 편찬회, 39쪽, 1969.
- 53) 홍병두는 평양 출신이며, 1943년 9월 평의전을 졸업하고 도립평양의원 소아과에 임용했다가 평양철도병원 외과로 전직했고, 다시 1944년 4월 도립평양의원 내과에 임용하여 해방을 맞았다. 그는 평양의학전문학교가 김일성대학 의학부로 바뀌기 직전인 1946년 8월부터 1947년 1월까지 중국 요녕성에서 동북인민해방군 이흥관지대의 외사로 활동했다가 1947년 3월 다시 복직하였다.
- 54) 현무설 : 평의 학창시절에서 월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 55) 졸업 직후 입국한 것으로 보이며, 후에 월남하였다.
- 56) 한정호는 평안남도 용강군 출신이며, 1944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내과 부수로 근무하다가 1946년 7월부터 1년간 평안남도 선천군의 평남 국영 성흥광산부속병원 내과장을 역임했다.
- 57) 장기려는 정창수, 김병일, 김봉건 등 외국원들에게 각각 전공 분야를 정해주었다. 김봉건 : 나의 부모와 스승. 평의 제9집, 280-298쪽, 1978.
- 58) 김명준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1942년 9월 평의전을 졸업하고 평양도립의원 외과에 임용하였다. 1945년 1월 평남 대동군의 일본 육군의 의무실에서 근무하다 해방 직후 그곳에서 신흥치안대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俞彩龍, 11 , 1945 10)⁵⁹⁾
 (趙基鎭, 12 , 1943 9)⁶⁰⁾
 (金昞朝, 13 , 1944 9 ,)⁶¹⁾
 (金奉健, 13 , 1944 9 -1946 4 , ,)⁶²⁾
 (金秉日, 14 , 1945 9 , ,)
 (李鏡龍, 14 , 1945 9 ,)⁶³⁾
 (鄭昌壽, 14 , 1945 9 , ,)
 (崔東弼, 14 , 1945 9 ,)
 (, 1945 9 -1946 8)⁶⁴⁾
 : (李時采, 5 , 1946 8)⁶⁵⁾
 (全敬德, 3 ,)⁶⁶⁾
 (金光七, 13 , 1944 9 ,)⁶⁷⁾
 : (1939 , 1946)⁶⁸⁾
 (裴萬奎, 7 , 1944 11 ,)⁶⁹⁾
 (崔亨圭)⁷⁰⁾

1945년 10월 다시 입국하였다.

- 59) 유채룡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다. 이상무 : 제11회 동기생 동정. 평의 제22집, 149-154쪽, 1992.
- 60) 조기전은 졸업 직후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1946년 후반기에 홍병두와 함께 동북 민주련군 이흥광지대에 참군 하였으며, 1948년 말 현재 인민군 군의관으로 있었다.
- 61) 졸업 직후 외파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 62) 김봉건은 평양 출신으로 1944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외파에 입국하였다가 1946년 6월 서울로 월남했다가 1946년 8월 다시 월북하여 국립고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10월 보건국 의무부에서 도시전료과 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1948년 2월 다시 외국 외국으로 들어 왔다.
- 63) 이정룡 : X선의 독배. 평의 제4집, 74쪽, 1972.
- 64) 최창수는 평양 출신으로 1945년 만주의대를 졸업하고 입국했다. 1946년 8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중국 동북 요녕성 일대에서 인민해방군 리흥관제대 위생부의 의무과장을 맡았다.
- 65) 리시채는 평안북도 용천군 출신으로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4년간 경성제국대학 생리학교실 부수로 있다가, 1944년 1월까지 동고 산부인과학교실 부수를 역임하였다. 1944년 1월부터 1945년 5월까지 평북 삭주도립의원 산부인과장 서리, 이어 1946년 4월까지 신의주 도립의원 산부인과장을 역임한 후 1946년 4월 평의전 병원 산부인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남한의 평의전 졸업생은 리시채가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66) 권경덕은 1935년 평의전을 졸업하였으며, 언제부터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졸업 후 모교에 남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해방 당시 학교에 재직하였다면 2회 박흥렬, 5회 안경림과 같이 원로 대전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 기록은 없다. 동창회 순례. 32. 평양의전 편 4(1935년). 의협신보 제805호, 1974년 12월 30일자 14면.
- 67) 졸업 직후 산부인과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 68) 박흥렬은 유채룡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구타당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받기도 했는데 박 교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고위 간부에 의해 2개월 후 복직되었다가 1개월 후 월남하였다. 배만규 : 미추린 학살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69) 배만규는 평남 용강군 출신으로 1939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소아과에 입국 1944년 11월 강사로 임명되었다.
- 70) 최형규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현무섭에 의하면 해방 당시 9회 최 모씨가 소아과에 있었다고 하는데 최형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형규가 9회 명단에 들어있지 않는 등 확실하지는 않다. 배만규 : 격

(劉基玉, , , 1942 ,)⁷¹⁾
 (崔春世,)⁷²⁾
 (金舜鏞, 13 , 1944 9 ,)⁷³⁾
 : (李鎬臨, , 1946 5)⁷⁴⁾
 (文琪永,)⁷⁵⁾
 : (安致烈, 13 , 1944 9 ,)⁷⁶⁾
 : (, 1943 8)⁷⁷⁾

3.

1946 7 8 「 」
 40 .⁷⁸⁾
 2 1946 9 1
 () , 4 2
 1 .⁷⁹⁾ ,
 .⁸⁰⁾
 , 1946 11
 (崔應錫)⁸¹⁾

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현무섭 : 평의 학창시절에서 월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 71) 유기옥은 동경여의전을 졸업하고 이차세계대전 발발 후(1942년 경 추정) 소아과에 입국하였다. 세의전 출신 유기원, 전 서울대 총장 유기전의 동생이다. 배만규 : 동란과 38따라지. 평의 제14집, 87-108쪽, 1983.
- 72) 언제부터 소아과를 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최용석의 친척이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73) 졸업 직후부터 소아과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74) 리호림은 1942년 세의전 이비인후과 과장을 맡았으며 1943년 사임하고 개업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6.
- 75) 문기영은 1929년 경의전을 졸업했다.
- 76) 안치열은 1944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방사선과에 입국하였다가 해방 직후 서울로 월남했다. 배만규 : 동란과 38따라지. 평의 제14집, 87-108, 1983.
- 77) 안면식은 평안남도 농강군 출신이며, 1942년 경치전을 졸업하고 선당동의 삼화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 1943년 8월 평양도립병원에서 부수 및 조수로 근무했다.
- 78)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28쪽, 1949. ; 김형찬 :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서울, 137쪽, 1988.
- 79) 김형찬 :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서울, 137쪽, 1988.
- 80)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28쪽, 1949.
- 81) 최용석은 평양 출신으로 1937년 동경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내과 조수로 근무하였다. 1944년 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45년 3월 형빈재판소에서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의 연도를 받고 출옥한 후 1945년 4월 20일 귀국하여 평양에서 쉬다가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0월까지 경성대학 의학부 내과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안 남조선 민전 중앙위원, 조선과학자동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46년 11월 월북하여 김대 의학부 차장 겸 병원장으로 있다가 화해 개척시 부정한 행동으로 규탄을 받아 1948년 1월 내과 교수직만 유지하게 되었다. 그는 1947년부터. 1948년 4월까지 인민보건의사 주필을 지냈고, 1947년 8월 15일 평양중앙병원 재건의

가 .
 .82) 1
 ,
 ,
 .83)
 가 가 가
 , 가
 .84)
 1949 -1950
 .
 :
 :
 (, 1946 11 , 1948 1)
 (金秉琪, , 1948 1)85)
 : (宋禮根, , 1947 가)86)
 (林英植,)87)
 : (1948 7)88)

공로로 북조선인민회의로부터 김일성위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부인도 의사이며, 동생 최창석은 보건성 의
 무국장, 최중석은 평남 보건부장을 지냈다.

82)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83) 배만규 : 미추린 학설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84)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다음의 책들을 번역한 사람들은 의사가 아닌 가능성이 높다. 김효숙 (역) (톤고
 브 웨 엔) : 인체해부학 (의대용 4). 교육성, 1949 / 국판, 331면, 3,000부 ; 박기홍 (역) : 병리 해부학 총론 (의대
 용 상). 교육성, 1949 / 국판, 3,000부 ; 박기홍 (역) : 병리 해부학 총론 (의대용 하). 교육성, 1949 / 국판, 327면,
 3,000부 ; 김락제 (역) (그라마웨브스꺼 예르 웨) : 디프테리아 및 성홍열의 역학 (보건 문고 13집). 교육성, 1949
 / 4X6판, 188면, 3,000부 ; 김락제 (역) (몰차노브 웨 이) : 디프테리아 (보건문고 16집). 보건성, 1950 / 4X6판,
 301면, 3,000부 ; 리옥남 (역) (질베르 아 엘) : 매추니코프와 그의 학설 (보건문고 5집). 보건성 위생방역국 위생
 선전부, 1949 / 4X6판, 71면 ; 리옥남 (역) (쓰페만스꺼 게 엔) : 애기 기르는 법 (보건문고 6집). 보건성, 1949 /
 4X6판, 90면, 10,000부 ; 김송암 (역) (리프브 아 웨) : 학교 위생학 (의대용). 교육성, 1950 / 국판, 291면, 3,000부
 ; 윤경선 등 : 발진티프스 조기 진단에 대하여 (보건 문고 4집). 보건성 위생방역국 위생선전부, 1949 / 4X6판,
 16면 ; 리석주 (역) (베를린 헤쓰 헤) : 결핵 및 그와의 투쟁. 국립인민출판사, 1950 / 4X6판, 57면, 5,000부 ; 백
 룡진 (역) (이드브르또바 아) : 홍역 (보건 문고 제3집). 보건성 위생방역국 위생선전부, 1948 / 4X6판, 53면 ; 리
 승일 (역) (안또노브 아 엔) : 신생아 (보건문고 5집). 보건성, 1950 / 4X6판, 38면, 5,000부 ; 김영희 등 (역) (씨
 레브르브 아 이) : 부인과학 (의전용). 교육성, 1950 / 국판, 311면, 10,000부

85) 경성제대 의학부를 1942년에 졸업하고 외과를 전공한 김병기로 보인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86) 송예근은 1939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제3내과에서 근무하다가 1944년 조선전업주식회사 부속병
 원장으로 있었으며, 이후 김대 의학부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
 19집, 132-152쪽, 1988. ; 한국박사대사전 제1권, 한국박사대사전 편찬회, 45쪽, 1969.

87) 임영식은 1932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였으며, 병원장이 김병기로 되면서 새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배
 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3). 평의 제20집, 64-80쪽, 1989.

88) 전동춘은 평양 출신이며, 1944년 평양 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이 된 후인 1945년 11월부터 1946년 5월
 까지 평양 소련군 노어강습소를 수료하고 소련군 제25군 사령부 통역으로 근무하였다. 1947년 6월 평양 북조선

- : (1947 2)⁸⁹⁾
- :
- : (1946 8)
- : (李相龍, , 1948 3)⁹⁰⁾
- : (1946 10)
- : (1947 7)⁹¹⁾
- : (1947)⁹²⁾
- : (1947 5 , 1948 4)⁹³⁾
- : (任聖宰, , 1947 1)⁹⁴⁾
- : ()
- :
- :
- : 95)
- : (1947 4)⁹⁶⁾
- : (全榮乙, , 1946 8 , 1 ,)⁹⁷⁾

중앙은행의 통역 겸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9월 평고대 외어과에 들어가 1년 동안 공부하였다.

- 89) 박기호는 함경북도 경원군 출신이며, 1943년 북만학원 상학부를 졸업하고 1944년 2월 하르빈 농업대학 사서, 1944년 9월 강사를 겸임하였다. 해방이 되고 1946년 2월 하르빈 조선인 중학교 교원, 1946년 3월 동명전문학교 강사를 겸임하다가 1946년 11월 선천으로 귀환하였다. 무슨 과목을 담당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90) 이상룡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1929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거쳐 해주 구세병원 원장에 부임하였다.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장연에서 개업하다 일본 강산의과대학에서 연구를 마치고 1942년부터 약 1년 동안 대구 동산병원 소아과장을 역임하였고, 1943년 8월부터 청진에서 개업하다 해방이 되자 청진시 인민위원회 보건과장(1945. 8-1947. 6), 청진의학전문학교 교원(1946. 4-1948. 3), 청진전염병원 원장(1947. 7-1948. 3), 청진방직공장병원 원장(1947. 12-1948. 3) 등을 역임하였다.
- 91) 현병근은 1946년 9월부터 1947년 6월까지 모스크바의 소련의학아카데미의 생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유학하였다.
- 92) 안진영은 1947년 여름 방역 관계로 중국 대련 방역연구소에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마약을 암매했다하여 김대 의학부 교수를 사임하고 선교리의 방역연구소 기사로 전출되었다. 안진영은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안진영 (역) (빠워닌 웨 아) : 의학 총론 (의대용 1). 교육성, 1950 / 국판, 210면, 30,000부 ; 안진영 (역) (빠워닌 웨 아) : 의학 총론 (의대용 2). 교육성, 1950 / 국판, 324면, 30,000부. 배만규 : 적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 93) 강원옥은 1946년 9월부터 1947년 5월까지 소련 모스크바 차아우의과대학에 유학하였다.
- 94) 임성재는 평양 출신이며, 경도제국대학 의학부를 다니다 해방되어 편입하여 1946년에 경성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내과 조수로 근무하다 월북하였다. 평의대에서는 위생학부 연구원으로 있었다.
- 95) 배영기는 1947년 11월부터 평양의 전염병연구소 소장을 겸임하였다.
- 96) 리동성은 처음 해부학 조수로 임명되었으나 위생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으로 보이며, 1947년 5월부터 1948년 4월까지 김대 의학부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1947년 4월부터 1948년 9월까지 김대 의학부 강사를 겸임하였다. 1946년 10월부터 1년 동안은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보건부 보건기사, 1947년 4월부터는 평양의학전문학교 강사, 1946년 12월부터는 북조선 보건연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관 서기장 등을 역임하였다.
- 97) 권영술은 함경남도 함주군 출신으로 1933년 세의전을 졸업하고 1년 동안 대구동산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한 후 4년 동안 원산 구세병원 내과의사로 있었고, 1938년 9월 일본 천엽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공생, 1940년 4월 명고육대학 의학부 생리학고실 부수를 역임한 후 귀국하여 1942년 10월부터 3년동안 원산 구세병원장, 1945년부터 원산시 인민병원장을 역임하였다. 평의대에서는 내과 각종 및 내과 임상을 강의하였다. 그는 소화성 궤양을 수면요법으로 고치는데 성공했으며,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딸 권정숙은 평의대를 다니다 월남하여 세브란스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46 11 1)⁹⁸⁾
 (1946 9 , 1948 4 ,)⁹⁹⁾
¹⁰⁰⁾
 ()
 (1947 3 , 1948 12 ,
)¹⁰¹⁾
 (, 1946 9)¹⁰²⁾
 (李昌鎭, , 1947 8)¹⁰³⁾
 (1947 5)¹⁰⁴⁾
 (朴南業, 1947 2 ,)¹⁰⁵⁾
 (李廷雨,)¹⁰⁶⁾
 (1947 7)
 (李東俊, 12 , 1948 6 ,)¹⁰⁷⁾
 : (1)¹⁰⁸⁾
 (2 ,)¹⁰⁹⁾

98) 배만규 : 미추린 학설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99) 선우구서는 1946년 9월 교수로 승진하면서 내과과장의 책임을 맡았고, 1948년 4월부터 결핵과 과장의 책임을 맡았다.

100) 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이한교는 1947년 강좌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언제 월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박사대사전 제1권, 한국박사대사전 편찬회, 39쪽, 1969.

101) 홍병두는 1947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일성대학 병원 직병의원장을 역임했고, 1947년 6월부터 1948년 7월까지 김일성대학 연구원 연구생이었다.

102) 김현제는 평안북도 용강군 출신으로 1938년 구주의전을 졸업하고 평양도립의원 내과 부수로 취직하였고, 1939년 7월 신의주도립의원 내과 의사로 있다가 1943년 11월 신의주에 김내과의원을 개업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1947년 5월부터는 김일성대학 연구원 연구생으로 있었다.

103) 리창진은 함경남도 장진군 출신이며, 1946년 3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최용석 내과에서 조수로 입국했고 1946년 11월부터 동명사립여자중학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월북하여 1947년 9월 김대 의학부 조수로 들어 왔다. 그의 정확한 소속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1948년 3월 김일성대학의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104) 1948년 7월 월남하였다. 현무섭 : 나의 유전인생. 제2편. 남하해서 개업하기까지. 평의 8집, 187-204쪽, 1977.

105) 박남업은 대구 출생이지만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자랐으며 1940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부속병원 조수로 있다가 1943년 12월 함흥철도병원 의사로 취직했다가 1945년 1월부터 강서면에 개원했다가 1946년 8월 강서종합병원 의사로 있었다. 이때 그곳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으로부터 러시아어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학 능력이 뛰어나 1946년 10월 북조선 교육국 교수로 임명되어 의학서적을 번역하였다. 1947년 2월 평의대로 부임하였고, 외과의사 알주난의 통역 역할도 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3). 평의 제20집, 64-80쪽, 1989. ; 김윤광 : 해방과 혼란의 시대. 평의 제28집, 93-124쪽, 1999.

106) 이정우는 1937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했고, 1946년 현재 내과의사로 있었다.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07) 이동준은 평양 출신이며 1943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내과에 근무하다가 1945년 2월부터 종연주식회사 평양병원 내과에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945년 9월 사동단광 중앙병원 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김대 의학부로 임명되었다.

108) 모스크바외과대학 일반외과 조교수로 있던 알주난이 언제 부임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소아마비에 관한 첫 강의를 박남업이 통역했다. 김윤광 : 해방과 혼란의 시대. 평의 제28집, 93-124, 1999. 박남업이 김일성대학 의학부로 임명된 것이 1947년 2월이니 그 전후 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배만규는 알주난이 해방 직후부터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3). 평의 제20집, 64-80쪽, 1989.

(1947 8)
 (朴學鳳, 9 , 1947 12 , 1948 4)¹¹⁰⁾
 (1946 11 1947 8)¹¹¹⁾
 (1948 10)¹¹²⁾
 ()
¹¹³⁾
 (1946 9)¹¹⁴⁾
 (1947 5)¹¹⁵⁾
 (1947)¹¹⁶⁾
 (1948 2 ,)
 (1948 4)
 : ()
 (宋明道, , 1947 8 ,)¹¹⁷⁾
 ()
 ()
 (盧春鐸, ,)¹¹⁸⁾

109) 병원장직은 1946년 11월 월북한 최웅석이 맡았다.

110) 박학봉은 함경북도 명천군 출신이며, 1940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만주 안동의 만철병원 의사로 1년 동안 근무한 후 1941년 4월 평의전 외과 의사를 거쳐 1942년 4월 다시 만철병원 의사로 근무하였다. 1943년 4월 김립에서 개원했고, 1945년 6월 함경북도 정성군으로 이전 개업하다 1947년 12월 김대 의학부 병원 의사, 이어 1948년 4월 평의대 교원으로 발령받았다.

111) 김명준은 1946년 11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중앙병원의 외과 군의관으로 전근했다가 1947년 4월부터 북조선 특별병원 외과의사 겸 직업동맹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947년 6월부터 김대 연구생으로 있다가 1947년 8월 김대 의학부 병원에 배치되었다. 여기에서는 1947년 9월 13일부터 병원 세포위원장으로 사임하였으며 병원부속 간호원학교장(1947.10-1948.4), 1947년 12월부터 북조선 보건련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 등을 겸하였다.

112) 유채룡은 김대 의학부를 떠나 홍남전소부속병원에 근무했고, 1948년 10월 25일 현재 교통성 중앙병원 외과의사로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군의관으로 서울대학병원을 접수하러 왔다는 소문이 있다. 이상무 : 제11 회동기생 동경. 평의 제22집, 149-154쪽, 1992.

113) 조기진은 1948년 말 현재 인민군 군의관이었기에, 중국에 갔다온 후 김대 의학부로 복귀하지 않고 군의관으로 잔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114) 1946년 3월 잠시 서울에 와 백인제를 만난 적이 있으며 다시 평양으로 갔다가 9월 하순 월남하였다. 김병조 : 장기려 선생님과 나. 평의 제11집, 238-242쪽, 1980.

115) 정창수 : 이경룡 선생과 나. 평의 제6집, 70-75쪽, 1975.

116) 1947년 1월 개천의 인민군 제1사단 의무대대 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2개월 후 이탈하였고 그해 초여름에 월남하였다. 정창수 : 하 ~ 최동필이. 평의 제12집, 200-204쪽, 1981. ; 정창수 : 이경룡 선생과 나. 평의 제6집, 70-75쪽, 1975.

117) 송명도는 평안남도 중화군 출신이나 황해도 황주군 후교면에서 자랐다. 1933년 대구의전을 졸업하고, 동산병원 내과에 근무하다 1933년 9월부터 함경남도 신갈과전의 형림서병원 내과에 근무하였다. 1936년 3월부터 정성제국대학 의학부 고남 산부인과에 입국했다가 1937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소천 외과에 입국하였다. 1938년 12월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만주 종만 총성에 산부인과병원을 개원하였으며, 해방 후부터 1947년 7월까지 황해도 황주군 후교에서 개업하다. 1947년 8월 평양의학대학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송명도 부임시 산부인과에는 3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송명도 : 내가 본 평의 동창. 평의 제9집, 126-129쪽, 1978.

118) 노춘탁은 평양 제2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경의전을 졸업하였다. 한국박사총람(1), 한국박사총람 편찬회, 132쪽, 1979.

: (1946 8 , ,)¹¹⁹⁾
 ()¹²⁰⁾
 (李用三, 12)¹²¹⁾
 ()
 (金元默, 15 , 1947 3 ,)¹²²⁾
 (金在珣, 15 , 1947 3 ,)¹²³⁾
 124)
 : (金星熙, 8 ,)¹²⁵⁾
 : (金炳武, 5 , 1946 10)¹²⁶⁾
 :
 (李益煥, 5 , 1947 10 ,)¹²⁷⁾
 : (李聖熟, , 1947 5)¹²⁸⁾
 : (, 1946 8)¹²⁹⁾
 (, , 1946 9 ,)¹³⁰⁾

119) 배만규는 1947년 4월 평안남도 보건부의 강력한 요청 및 병원장의 요청으로 평남위생실험소 소장을 겸무하였다.

120) 최용석에 원장으로 있을 당시 공산당의 숙청 대상에 올라 강원도 평강 결핵요양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얼마 후 월남하였다. 배만규 : 동란과 38따라지. 평의 제14집, 87-108쪽, 1983.

121) 1943년 평의전을 졸업했는데, 언제부터 소아과를 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유기옥 대신 강원도 평강 결핵요양소로 전근되었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122) 김원묵은 평양 근교에서 출생하였다.

123) 형인 6회 졸업생 김제령과 함께 월남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124) 최용석의 처로서 동경여의전을 졸업했는데, 언제부터 소아과를 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125) 김성희가 언제 정신과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장기려는 1948년 초 의학박사를 받은 후에 그를 언급하고 있다. 김성희는 졸업 후 즉시 일본 동북대학에서 4년 동안 정신과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였다. 동창회 순례. 67. 평양의전 편 12(1940년). 의협신보 제883호, 1975년 10월 2일자 14면.

126) 김병무는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으로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한후 경성의 적십자사 조선본부병원, 도립평양의원 안과 등에서 의원 및 부수로 근무하다, 1941년 1월부터 독립신의를병원 안과장, 해방후 부원장을 겸임하다 1946년 10월 김일성대학 의학부 교원으로 임명받았다.

127) 리익환은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으로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외과 부수로 남았다가 12월 경남 통영을 수천당이비과 과장, 1939년 6월 만주 열하성립병원 이비과 과장, 1943년 6월 만주의대 이비과 연구생을 역임하였다. 1945년 6월 평북 독립신의를병원 이비과 과장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고, 1946년 9월 소련 모스크바의 중아의사훈련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1947년 5월 함흥의과대학 이비과 교수 겸 과장으로 있다가 10월 김대병원 이비과에서 임시 근무하게 되었고 12월 이비과 과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948년 3월 김대 의학부병원 간호원학교 교장에 임명되었다.

128) 이성숙은 평북 용천군 출신으로 1935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피부과에 입국하여 강사를 거쳤다. 이후 신의주에서 개업하다가 해방이 되자 평안북도 신의주 임시자치회 의원,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보건부장, 북조선 인민위원회 보건국 부국장, 북조선 적십자사 청림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이력서에 김대 의학부 교수가 첫 교원 발령으로 보아 평의전 시기에는 교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9) 김정규는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1930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2년간 평양에서 개원하다 1932년 5월 수원의 남양학교 교원을 지냈으며, 1934년 9월에는 평양 기성의학강습소 강사를 하다 1935년 9월 치과를 개원하였다. 해방이 되고 1946년 4월부터 평양 기림리위원장을 하다 김대 의학부 교수로 임명되었다. 1946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평양시 및 도 인민재판소 참신원을 역임하였다.

(, 1948 3)¹³¹⁾
¹³²⁾
 : (1947 3 , 10)¹³³⁾
 (1947 7 , 1948 4 ,)¹³⁴⁾

4.

1948 7 7 69 157 「
 」 , 9 1 ,
 () .¹³⁵⁾
 , .¹³⁶⁾
 . 1948 150 ,¹³⁷⁾ 1949
 639 .¹³⁸⁾
 1948 9 3 , 4
 .
 가 ,
 .¹³⁹⁾ 1949
 .¹⁴⁰⁾

-
- 130) 최달형은 평양 출신이며, 1928년 경성치과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연구한 후 경치전을 입학해 1930년 3월 졸업하였다. 졸업 후 평양에서 개업하다 김대 의학부 교수로 임명되었다.
- 131) 김태하는 평안남도 성천군 출신이며, 1941년 12월 경치전을 졸업하고 보철학교실 조수로 근무하다 1943년 10월 평양에 개원했다. 1945년 10월 평양 제6인민병원 책임자, 1946년 6월 평양 제1인민치과병원 원장을 하다 1948년 3월 김대 의학부 교수로 임명되었다. 1947년 9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북조선 적십자사 평양시지부 부지부장 겸 서기장을 겸임하였다. 평의대 교수가 된 후에도 평양 제1구강진료소의 소장을 겸임하였다.
- 132) 안면석은 김대 의학부 연구원, 1947년 5월부터는 김대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 133) 임녹재는 황해도 황주군 출신이며, 1943년 일본대학 농학부 전문부를 졸업하고 개성의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46년 12월 월북하여 1947년 3월 김대 의학부 강사로 임명되었고, 3월 북조선 인민위원회 보건국 소속 북조선 약품연구소 기사로 임명되었고, 1947년 10월 교수로 임명되었다. 1947년 3월부터는 평양의학전문학교 강사로 임명되었다.
- 134) 윤기녕은 북조선 약품연구소 외사로 근무하던 중 1947년 7월부터 1948년 4월까지 김대 의학부 강사로 근무하였고, 1948년 4월부터 김대 의학부 약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 135) 김형환 :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138쪽, 1988. ; 그렇지만 실제 평양의학대학 교원들의 이력서에는 1948년 7월부터 평양의학대학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기록한 경우도 많다.
- 136) 정창수 : 모교 8.15에서 6.2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 137) 홍순원 : 조선보건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462쪽, 1981.
- 138)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129쪽, 1949.
- 139) 정창수 : 우리는 일남오녀. 평의 제5집, 50-54쪽, 1974. 이전 날짜가 1950년 2월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1948년 9월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추암 : 평의세시기. 평의 제9집, 314-327쪽, 1978.
- 140) 정창수 : 모교 8.15에서 6.2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 141)
- :
- : 142)
- : 143)
- :
- : (1948 10)¹⁴⁴⁾
- : (1948 8)¹⁴⁵⁾
- : (1948 10 ,)¹⁴⁶⁾
- :
- : (1948 10)¹⁴⁷⁾
- :
- : 148)
- : (1 , 1947 9)¹⁴⁹⁾
- :
- : 150)

- 141) 정두현은 최용석의 제기한 미추린 학설 승인 문제로 비판을 받아 학장에서 물러났으나 교직은 유지하면서 계속 생물학을 담당하였다. 배만규 : 미추린 학설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이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후임 학장이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 142) 김병기는 후에 월남하였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 143) 임영식은 1950년 9월 당시 평의대 부원장이었다. 이기환 : 성산 장기려. 한결음, 서울, 171쪽, 2000.
- 144) 이상옥은 평안북도 강계군 출신이며, 1939년 조도전대학 전무부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경성의 종연방직회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944년 8월 가예의 신강계제소 출장소 소장을 하다 해방을 맞았고, 1946년 1월 민청 강계군 전천면 위원장, 1946년 5월 북조선 노동당 전천면 당부 선전부장, 1946년 11월 강계군 만포중학교 교장, 1947년 8월 북조선 노동당 강계군 당부 문화인부장, 1948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평양 북조선노동당 중앙당 학교 이론반을 수료하였다.
- 145) 리춘희(이력서에는 리춘희로 되어 있음)는 평안남도 영원군 출신이며, 1937년 동경 조도전대학 제2고등학교원, 1940년 조도전대학 정격학부를 졸업하고 장가구의 몽강공사 사무원, 1941년 8월 만선일보사 서무부장, 1943년 7월 동회현 귀농조합 서무부장을 하다 귀환하였다. 1946년 1월 평안남도 영원군 영원정치학교 교원, 1946년 4월 평양 창생상업학교 훈육주임, 1946년 5월 평양 제3중학교 교원, 1946년 9월 북조선 교문직명 평양시 위원장, 1947년 1월 교육국 간부부 책임, 6월 김대 간부부장 겸 교원, 12월 북조선 중앙교육간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가 어느 과목을 강의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 146) 김덕춘은 평안북도 강계군 출신이며, 1933년 송천전문학교 문학부를 졸업하고, 1934년 4월부터 4개월간 립교대학 문학부 영문과를 다녔고, 1935년 4월 강계의 명신학교 교장, 1937년 3월 회령의 보흥여학교 교원을 지냈다. 1939년 10월부터 2년 동안 립교대학 문학부 영문과를 다녔고, 1941년 12월 강계 금융조합 사무원으로 근무중 해방을 맞았다. 1945년 10월 강계중학교 교원, 1946년 6월 교장을 역임하고, 1947년 7월 북조선 문예총 강계군 문학동맹 위원장을 거쳐 1948년 1월 강계사범전문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 147) 황희현(이력서에는 황희현으로 되어 있음)은 강원도 철원군 출신이며, 1944년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공립고등여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1946년 8월 면직되고 10월 월북하여 평양사범전문학교 교원을 거쳐 1947년 5월 김대 농학부 연구원, 1948년 5월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원을 거쳐 평의대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녀가 가르친 교과목은 분명하지 않다.
- 148) 리창근은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리창근 (역) (돈코브 웨) : 인체해부학 (외대용 5). 교육성, 1949 / 국관, 286면, 3,000부 ; 리창근 (역) (돈코브 웨) : 인체해부학 (외대용 6). 교육성, 1950 / 국관, 385면, 30,000부
- 149)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럼, 서울, 135쪽, 2001.
- 150) 김인석은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김인석 (역) (발쓰끼 예 웨) : 생리학 (외대용 상). 교육성, 1949 / 국관,

(1948 10)
 : ()¹⁵¹⁾
 (洪淳鈺, , 1948 9)¹⁵²⁾
 (安在洙,)¹⁵³⁾
¹⁵⁴⁾
¹⁵⁵⁾
 (1 , 1947 9)¹⁵⁶⁾
 : ()¹⁵⁷⁾
 (朴東烈, , 1948 10)¹⁵⁸⁾
 :
 (朴宇均,)¹⁵⁹⁾
 (1 , 1947 9)¹⁶⁰⁾
 : (洪學根, , 1948 8)¹⁶¹⁾
 : (1 , 1.4)¹⁶²⁾

351면, 5,000부 ; 김인석 (역) (밥쓰끼 예 웨) : 생리학 (외대용 하). 교육성, 1950 / 국판, 420면, 3,000부

151) 언제 부임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152) 홍순옥은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1937년 대구의전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산부인과 조수를 했으며, 1938년 4월부터 1945년 3월까지 만주 봉천의 만주의과대학 소아과 부수로 근무하였다. 1939년 3월부터 해방까지는 만주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연구생으로 있었다. 해방 후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1946년 6월 신의주 시립병원 소아과장, 1948년 3월 신의주 중앙병원 소아과장을 역임하였다. 홍순옥은 한국전쟁 때 거제도 수용소에 있었다고 하며 남한에 전류하라고 하니 가족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 평의 제18집, 95-101쪽, 1987.

153) 안재수는 평의전을 졸업하고 1948년 현재 평의대 부교수로 있었다. 그의 졸업 연도나 부교수 제직시 소속 교실이 불확실하지만 이후의 이력을 통해 세균학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서문제연구소 編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서울, 1990

154) 장원옥은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장원옥 등 (역) : 의학 미생물학 (외대용 상). 교육성, 1949 / 국판, 277면, 3,000부 ; 장원옥 등 (역) : 의학 미생물학 (외대용 하). 교육성, 1949 / 국판, 318면, 3,000부

155) 김소하의 출신은 확실하지 않다. 전지일 : 마지막 본 평의대 대강당. 평의 제25집, 39-42쪽, 1996.

156)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럼, 서울, 135쪽, 2001.

157) 김능기는 한국전쟁 때 월남하였다. 한국박사대사전 제1권, 한국박사대사전 편찬회, 11쪽, 1969.

158) 박동열은 강원도 금호군 출신이며, 1924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의원에서 근무하다, 1926년부터 경남 사천에서 개원을 했고, 1928년 5월 안국동 덕제병원 부원장, 1930년 7월 견제동 실비진료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1922년 1월 경성제대 약리학교실에 전공생으로 들어갔고, 1938년 10월부터 북경대학 강사를 하면서 1941년부터 해방 때까지 중국 칭도시 동야과학연구소의 소장을 겸임했고, 1946년 초 귀국하여 서울 원효로에서 협생병원을 운영하다 월북하였다.

159) 박우균은 1941년 12월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의학부 병리학교실 제2강좌에서 근무하다 해방 후 조교수가 되었다. 1946년 10월 서울의대가 만들어질 때에도 조교수로 있었으나 언제 월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현무섭은 1946년 5-6월경이라고 했지만, 배만규는 평의대 시기에 처음 언급하고 있다. 현무섭 : 평의 학창시절에서 월남까지 생각나는 대로. 평의 제7집, 368-384쪽, 1976. ; 배만규 : 미추민 학살과 정 학장. 평의 제12집, 16-26쪽, 1981.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88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192-205쪽, 1978.

160)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럼, 서울, 135쪽, 2001.

161) 홍학근은 평안남도 영원군 출신이며, 1935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이등내과 부수로 남았다가 1936년 8월 평남 안주군에 개원했다. 1941년 3월 경성제대 의학부 병리학교실에 입국했다가 1943년 4월 이등내과에 부수로 남았다. 1943년 11월 다시 안주에서 개업하다가 1948년 3월 안주제일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163)
 (1948 11 1)¹⁶⁴⁾
 (2 , 1948 12)
 (金應椿, 1 , 2 ,)
 (柳錫均, , 1949 2 3)¹⁶⁵⁾
 (3)
 (3)
 (1946 9 , 1948 4 ,)
 (金麟聖, 2 , 1948 9 1 , 1950 11)
)¹⁶⁶⁾
 ()
 (李廷雨, 1950 5)
 (1948 12 10)
 ()¹⁶⁷⁾
 (1948 11)¹⁶⁸⁾
 ()¹⁶⁹⁾
 (1 , 1947 9 ,)¹⁷⁰⁾

162) 진단학을 강의하였다.

163) 최용석은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최용석 (역) (레파베르 이) : 로동 위생학 (대학용 1). 교육성, 1949 / 국판, 392면, 3,000부 ; 최용석 (역) (레파케로 아) : 로동 위생학 (외대용 2). 교육성, 1950 / 국판, 385면, 3,000부 ; 최용석 (역) (질킨드 엘 이) : 건전한 결혼과 건전한 가정 (보건 문고 제41집). 보건성, 1950 / 4X6판, 88면, 5,000부

164) 김현세는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김현세 등 (역) (와셀렌코 웨 하) : 내과학 (외전용 1). 교육성, 1950 / 국판, 286면, 3,000부

165) 류석균은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으로 1931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후 암정내과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37년 11월부터 평양 전매국 의무실에 근무하다 다시 암정내과로 들어 갔다. 1939년 10월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하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1년 동안 시민병원을 개원했고, 이 시기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1947년 4월부터는 산업의학연구회 위원장, 1947년 5월부터는 남조선 보건연맹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9월 경 월북한 후 1948년 10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직속 중앙지도간부학교를 졸업하고 1949년 2월부터 평양의학대학 내과 강좌장을 맡았다.

166) 김린성은 평안남도 상원읍 출신으로 1934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내과에 부수로 남았다가 1938년 4월 평안남도 강동군 삼동면의 공의 겸 탄광축탁의로 되었다가 1940년 4월 만주군 군의관으로 임명되었다. 1941년 8월 치치하얼에서 개원하다가 1945년 8월 초 귀국했고, 1946년 4월 북조선 보건소 부소장으로 활동했다. 평의대 재직 중 1950년 11월 월남하였다. 김린성 : 유고. 평의 제19집, 174-179쪽, 1988.

167) 박남업이 번역한 책은 다음과 같다. 박남업 (역) (아체르칸 비 에스) : 치료 일반 (1). 교육성, 1949 / 국판, 5,000부 ; 박남업 (역) (아체르칸 비 에스) : 치료 일반 (2). 교육성, 1949 / 국판, 225부, 5,000부 ; 박남업 (역) (아체르칸 비 에스) : 치료 일반 (3). 교육성, 1949 / 국판, 312부, 5,000부 ; 박남업 (역) (아체르칸 비 에스) : 치료 일반 (4). 교육성, 1949 / 국판, 156부, 5,000부 ; 박남업 (역) (오이세예브 에스 웨) : 위생학 총론 (외대용 상). 교육성, 1950 / 국판, 440면, 3,000부 ; 박남업 (역) (오이세예브 에스 웨) : 위생학 총론 (외대용 중). 교육성, 1950 / 국판 404면, 3,000부 ; 박남업 (역) (오이세예브 에스 웨) : 위생학 총론 (외대용 하). 교육성, 1950 / 국판, 243면, 3,000부. 그는 1.4 후퇴 때 월남하였고, 용암동에서 개업하다 1980년대 말 작고했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3). 평의 제20집, 64-80쪽, 1989. ; 김윤광 : 해방과 혼란의 시대. 평의 제28집, 93-124쪽, 1999.

168) 리창진은 김대 의학부 연구원으로 있다가 평의대로 되자 평의대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69) 이동준은 후에 월남하였다.

(趙演淳)¹⁷¹⁾

: (1)¹⁷²⁾
 (2 , 1950 12)
 (1948 7)
 (1948 10)
 (1948 11)¹⁷³⁾
 (1948 11)
 (1. 4)
 (1. 4)¹⁷⁴⁾
 (1. 4)¹⁷⁵⁾
 (1950 12)¹⁷⁶⁾
 (鄭一觀, 13 ,)¹⁷⁷⁾
 (朴允武, 1 , 1. 4)¹⁷⁸⁾
 (1 , 1947 9)¹⁷⁹⁾

(金湖原)

(朱承燁)

(李昌瑞)

: ()
 (許信, , 1948 8)¹⁸⁰⁾
 (5 , 1949 3)¹⁸¹⁾

170)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컴, 서울, 135쪽, 2001.

171) 조연순의 출신교나 배경은 확실하지 않으며, 정창수는 평의대 내과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창수 : 모교 8.15에서 6.2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172) 알주난은 한국전쟁 때도 진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컴, 서울, 127쪽, 2001.

173) 김명준은 한국전쟁 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이남 관류를 권하자 이북 가족을 핑계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이상무 : 제11회 동기생 동정. 평의 제22집, 149-154쪽, 1992.

174) 김봉건은 1950년 11월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여 치안이 안정되자 기독교병원 자리의 다다병원에 근무하다 선교사의 구호병원에 근무하였다. 1.4 후퇴 때 월남했다. 김봉건 : 평양 거리의 추억. 평의 제10집, 150-160쪽, 1979.

175) 1.4후퇴 때쯤 남하했다. 김봉건 : 고 김병일 선생을 추도함. 평의 제18집, 236쪽, 1987.

176) 정창수는 1950년 12월 남하했다. 정창수 : 이정룡 선생과 나. 평의 제6집, 70-75쪽, 1975.

177) 1951년 2월 경 배만규가 훈련소에서 휴가 나왔을 때 정일관은 남한에 있었다.

178) 한국전쟁 때 월남했다.

179)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컴, 서울, 135쪽, 2001.

180) 허신은 평안북도 용천군 출신으로 1924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1933년 4월까지 조선총독부의원 및 경성제국대학 산부인과 조수를 역임하였다. 1933년 12월부터 경성에, 1939년 1월부터 1946년 3월까지 신의주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였다. 1946년 2월부터 2년간 신의주 시립병원 촉탁의, 1948년 3월 부원장을 역임했고, 1948년 8월 보건성에 의해 소환되어 평양의학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임명되었다.

181) 황병건은 평양 출신이며, 1937년 평의전을 졸업하고 조수로 남았다가 1938년 10월 나가사키 의대에서 약리학과 산부인과를 공부했고 1943년 11월 귀국하다가 1944년 10월부터 개원하였다. 동시에 평의전 강사를 겸임했으며, 1947년 1-0월부터 북조선 특별병원 산부인과장을 역임하였다.

(1.4)¹⁸²⁾
 ()¹⁸³⁾
 ()
 ()
 (宋孝元, 1 ,)
 (金國鉉)¹⁸⁴⁾
 : (, 1950 12)¹⁸⁵⁾
 (金鍾元, 5 ,)¹⁸⁶⁾
 (韓淳甲, 7 ,)¹⁸⁷⁾
 (11 ,)¹⁸⁸⁾
 ()
 : (金麟洙, , 1948 10)¹⁸⁹⁾
 ()
 (1 , 1947 9 ,)¹⁹⁰⁾
 :
 (1 , 1947 9)¹⁹¹⁾
 :
 (1948 9)
 (李炳澤)¹⁹³⁾

182) 송명도는 6.25 직전 교수로 승진되면서 청진의대 주임교수로 진출 발령받았으나 허신의 반대로 가지는 않았다. 송명도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순안의 육군병원 병동장으로 징집되었으며 1.4 후퇴때 월남하였다. 송명도 : 내가 걸어온 길. 평의 제11집, 219-221쪽, 1980. ; 송문원 : 부친 인송 송명도 아버님을 추도하며. 평의 제29집, 216-220쪽, 2000.

183) 노춘택은 후에 월남하였다. 한국박사총람(1), 한국박사총람 편찬회, 132쪽, 1979.

184) 정창수 : 모교 8.15에서 6.2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185) 배만규는 1950년 12월 4일 국군을 따라 남하했으며, 2월 21일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다. 배만규 : 동란과 38파라지. 평의 제14집, 87-108, 1983.

186) 김중원이 언제 소아과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졸업 후 소아과 의사로 근무했다는 기록(박원식 : 포항선린병원장 김중원. 평의 제17집, 138-141쪽, 1986)이 있으며, 배만규 보다 먼저 월남했다. 배만규는 김중원이 1947년 입국한 김재순과 함께 빨발이 이산된 교실원 중 두 사람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배만규 : 동란과 38파라지. 평의 제14집, 87-108쪽, 1983.

187) 한순갑은 1939년 평의전을 졸업했으며, 언제 소아과를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배만규와 오래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한다. 후에 월남하였다. 배만규 : 동란과 38파라지. 평의 제14집, 87-108, 1983.

188) 림농원이 언제 소아과를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48년 10월 현재 소아과 의사로 있었다.

189) 김린수는 평안북도 영변군 출신이며, 1939년 세의전을 졸업한 후 1년간 정신과 부수로 근무하였다. 1940년 4월 구주제국대학 의학부 정신과에 근무했고 1943년 7월부터 1년간 영변에 개업하다가 1944년 8월 세의간 강사로 임명되었다. 1945년 7월 고향에서 다시 개업하다 해방을 맞았고 1947년 9월 영변 제일병원원장, 영변군 보건동맹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명희대 교수로 임명되었다.

190)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컴, 서울, 135쪽, 2001.

191)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컴, 서울, 135쪽, 2001.

192) 리호림은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리호림 (역) (핀 게 엘, 리하체보 아 게) : 이비인후과 (의전용). 교육성, 1949 / 국립, 239면, 3,000부

193) 불순분자로 제관 받았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3). 평의 제20집, 64-80쪽, 1989.

: (1948 11)¹⁹⁴⁾
 : (韓重根, 1 , 1.4)
 (盧聖仁)¹⁹⁵⁾
 :
 (, 1948 6)¹⁹⁶⁾
 (1948 9)¹⁹⁷⁾
 (, 1948 9)¹⁹⁸⁾
 : ()¹⁹⁹⁾
 (, 1948 10)²⁰⁰⁾
 (, 1948 12 ,)²⁰¹⁾
 : 202)
 (1948 9)
 203)
 (金潤光, 1 , 1.4)
 (安應植, 1)

194) 리성숙은 1947년 5월 녹막염 재발로 고향에서 휴양 중 1947년 11월부터 1948년 10월까지 신의주의학강습소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3월부터는 신의주 중앙병원 피부과장 역임하다가, 1948년 11월부터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195) 배만규에 의하면 노성인은 1949년 8월 당시 평의대 병원의 직임동행위원장이었다고 한다. 배만규 : 격동 속에 흘러간 세월(기 2), 평의 제19집, 132-152쪽, 1988.

196) 최도명은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이며, 1944년 경치전을 졸업하고 신의주 소화치과위원에 근무하였다. 1945년 10월 의주군 고성면 임시자치인민위원회 행정부장을 거쳐 12월 순천치과위원에 근무했으며, 1946년 2월 집에서 쉬다가 9월 의주중학교 교원, 1947년 6월 의주농업학교 교원, 9월 의주농업전문학교 교양주임을 거쳐 1948년 6월 막천군 인민위원회 보건과장을 역임하였다.

197) 안면식은 김대 의학부 연구원, 1947년 5월부터는 김대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8) 계원규는 평안북도 의주군 출생이며, 1939년 경치전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조수로 있다가 1940년 11월 평안북도 선원에서, 1942년 10월에는 평양 순명리에서 개업하였다. 1947년 3월부터 평양의 북조선 특별병원 구강과장을 역임하였다. 동생 계원철은 세의전을 졸업하였다.

199) 윤기병은 후에 월남하였다. 한국학사대사전 제1권, 한국학사대사전 편찬회, 7쪽, 1969.

200) 한도준은 평안남도 평원군 출신이며, 1928년 경성약전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약국, 약물학 조수 및 부속 산과간호원 양성소 약물학 강사를 하다 1934년 3월 사임하고, 1934년 9월 평양에 개업하였다. 1945년 1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 보건국 약무국장, 1947년 6월 평양 상공화학공장 책임자, 1947년 11월 평양 교원대학 화학과 교수, 1948년 6월 북조선 적십자사 제약공장 기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 차덕준은 평안남도 순천군 출신이며, 1941년 동경약전을 졸업하고 평양의 평남 위생시험소 지방기수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1946년 4월 평양경제전문학교 교원을 거쳐 1947년 11월 평양 북조선위생연구소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다.

202) 이 시기에 배영기는 다음과 같은 책을 번역하였다. 배영기 (역) (호르쓰파레브 아 아) : 위생실습 (치대웅). 교육성, 1950 / 국판, 238면, 3,000부

203) 월북하여 세균학을 하다가 위생학부로 바꾸었다.

5. ,

14 204) 1942 4 80 30 .

12 8 , , , ,

. 1945 5 8 .205) 1945 9

. 30 15

, 15 (),

(), () .

15 1947 3

. 22 12

, 3 (, ,) .206)

() () .

1949 7 1 1944 4 1 16

. 100 30 . 가 3

, ,

. 2

가 , .207)

가 30 10

.208) 10 209)

210) 5

. 1949

가 2 51 .

.211)

204) 정창수 : 제14회 동창회 최근 동정. 평의 제1집, 65-68쪽, 1967. ; 정창수 : 제14회 동기들. 평의 제15집, 146-154쪽, 1984.

205) 정용원 사람 중에는 장원옥이 평의대 교수로 있었다.

206) 동창회 순례. 117. 평양의전 편 19(1947년). 의협신보 제988호, 1976년 10월 7일자 14면.

207) 김광산 : 평의대 1기 동창회 최근 동향. 평의동창회지 창간호, 69-71쪽, 1967.

208) 이들 중에는 유명한 시인 박인환도 있다. 그는 1944년 제령 명신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의권에 입학하였으나 해방이 되자 학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월남하였다. 평의 제13집, 20쪽, 1982.

209) 송석규는 가톨릭 의대, 권택명은 연세대의대, 한종각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였다. 평양의대 동창 소식. 평의 제4집, 93쪽, 1972. ; 안도일은 경북의대를 졸업했으며, 7명이 서울의대를 졸업하였다. 동창회 순례. 121. 평양의전 편 20(1949년). 의협신보 제996호, 1976년 11월 4일자 14면.

210) 전기록, 조기화 등이 대표적이다.

211) 조기화의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가 (5), (4), (3) 5 .
 (가) , (,
), , , , .
 50 1 4
 10 .²¹²⁾
 10 . 7 1
 1 .
 ,
 1946 3 20 20 ²¹³⁾ 「(20) 가
 」
 가가 가
 .
 1947 4 8 30
 가
 ,
 ,
 가
 가가 가
 .
 1949 가 100:17
 가
 가 1 ,
 , , ,
 .²¹⁴⁾
 51 10
 가 .
 .²¹⁵⁾

212) 김윤광 :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진에드컴, 서울, 132쪽, 2001.

213)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65쪽, 1949.

214) 정창수 : 모교 8.15에서 6.2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그렇지만 간혹 예외도 있었다. 평의대 1회 졸업생 권기복은 졸업 후 원산 도립병원 소아과로 지정되었으나, 결국 평양 제1인민병원 소아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정창수 : 변호사가 되려던 꿈이 역의사가 된 평의의 홍일점. 권기복 의대 1회 동문론. 평의 제5집, 42-44쪽, 1974.

215) 김광산 : 평의대 1기 동창회 최근 동향. 평의동창회지 창간호, 69-71쪽, 1967.

(金公山) : 1. 4

(金承圭) : .216)

(金潤光) : , 1950 12

(金應椿) : , 2

(朴允武) : ,

(宋孝元) : ,

(李天舜) : 1952

(田箕福,) : , 1944

.217) 1

1. 4

(趙基和) : , 岩手 2

가 1945 8 8 3

.218)

(韓重根) - ,

2 1945

.219)

1950 6 23 50 30 가 ,

10 . 6 20 ,

38 .220)

(金蓮元)

(金允植)

(金枝春,) :

(金炯哲) : (秋乙)

가 1.4 .221)

216) 정창수 : 슬과 동창과 나. 평의 제6집, 156-165쪽, 1975.

217) 정창수 : 변호사가 되려던 꿈이 여의사가 된 평의의 홍일점. 전기북 외대 1회 동문론. 평의 제5집, 42-44쪽, 1974.

218) 조기화 : 내가 본 마지막 8일간의 평의전. 평의 제5집, 88-89쪽, 1974.

219) 한덕근 : 평의대 2기 동창의 최근 동향. 평의동창회지 창간호, 71-74쪽, 1967.

220) 정창수 : 모교 8.15에서 6.35까지. 평의 제2호, 33-38쪽, 1969.

221) 김형철 개인 면담.

(申昊堤) :
 (元昞日) : , 222)
 (趙商錫) :
 (趙營七) :

2
 가
 가, 1. 4 , 223)

(崔景洙)
 (韓德根) : 가 1.4 , 224)

가
 ,
 가
 1944
 ,
 ,
 1, 2
 가

가
 ,
 가
 1946
 1946 9
 가

222) 정창수 : 술과 동창과 나. 평의 제6집, 156-165쪽, 1975.

223) 조영철 : 생각나는 일들. 평의 제12집, 138-145쪽, 1981.

224) 김형철 개인 면담.

가 . 1948 9 가
가 1949
7 1 51 . 가 .
. 1950 2
, 6 .
가 ,
가 가
가 20 가
,
(前史)

: , , , , , ,
< (2) . > (1)